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예수님의 설 선물...



- [제 1독서] 말라 3, 1-4
[화답송] 시편24(23), 7, 8, 9, 10(©10 L.C.)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입니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입니다.◎
[제 2독서] 히브 2, 14-18
[복음 환호송] 루카 2, 32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루카 2, 22-40 또는 2, 22-32

성가	8시 미사	입당 19	봉헌 220 221	성체 154 178	파견 16
	11시 미사	입당 19	봉헌 220 221	성체 154 178	파견 16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연중 제5주일(2월 9일)		연중 제6주일(2월 16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파오로(명국)	권미카엘(창모)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이베로니카(경란)	최분다(수영)	서테레사(춘애)	김글라라(순희)	김테레사(승희)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봉헌, 빛, 만남의 축일

예수께서 탄생 후 40일 되는 날,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봉헌되셨다고 하는데, 루카복음은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축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일 년 동안 전례나 개인기도 중에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그 기도문은 “모든 빛의 샘이시요 근원이신 하느님, 오늘 이교 백성을 비추시는 계시의 빛을 시메온에게 보여 주셨나이다.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이 초를 + 거룩하게 하시고, 이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의 정성을 굽어보시어, 현세에서 덕을 닦음으로써 마침내 꺼질 줄 모르는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문은 주님 봉헌축일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헌축일을 지내며, 그 의미를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봉헌입니다. 봉헌이란 글자 그대로 '받들어 바친다.'는 뜻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의 성전에서 봉헌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랐을 뿐더러 예수님을 하느님의 것으로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오늘 봉헌기도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봉헌축일인 오늘 우리는 봉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들의 봉헌이 과연 합당한가를 살펴보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소중한 것을 기꺼이 봉헌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여 올바른 봉헌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 봉기도문은 “영원한 빛이시며, 온 세상을 비추시는 하느님, 신자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성전에서 이 초를 받는 저희가 마침내 주님의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과연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셨으며, 어둠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초를 축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그 분을 믿고 따라 갑니다.

세 번째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봉헌하러 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언자인 시메온과 한나 그리고 그들이 기다려 온 예수님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시메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나는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으나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없이 단식과 기도로써 하느님을 섬겨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단 두 사람, 진심으로 하느님을 기다려왔던 분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올바르게 깨닫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기다림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제논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치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하느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정결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즉 레위기 12, 1-8에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간,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간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므로, 40일이 지난 후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축일을 일찍부터 기념해 왔으며, 5세기 중엽부터 이날의 의미를 기억하며 촛불을 들고 행렬을 하는 관습도 생겨났습니다.

그 후 이날 행렬에 사용되는 초를 축복하던 전통이, 한 해 동안 성당과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하는 관습으로 변화되어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하고, 아울러 제대에서 사용될 물건을 봉헌합니다. 이날 촛불을 들고 행렬을 하였던 이유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탄생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하느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며, 더불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초를 봉헌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께 봉헌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돼 나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이날에 맞추어 사제서품식이 거행되기도 하였고, 저도 꼭 20년 전 오늘 사제품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사제로 살아온 지난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살아온 만큼, 큰 거목이 되거나 맛있는 과목이 되어 가는데…….

아주 천천히 쉬지 않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제로 산다고 해서 무엇이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로 살아온 것에 대해, 그저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모든 신부님들께도 감사하고, 다른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사제서품 때 선택했던 성구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므리바에서처럼 마씨의 그날의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시편 94)

민영환 토마스모어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영성지도

+ 2월의 성인/성녀

고르벨리오, 라자로, 다미아노, 도미니카, 라우렌시오 루치오, 라사, 리카르도, 모데스토, 메토디오, 베르다, 베드로다미아니, 브리지다, 브루노 블라시오, 사비노, 세베로, 스킴라스티카, 아가타 이사벨라, 이시도로, 이아, 이냐시오, 유스토 예로니모, 에밀리아니, 율리아나, 제노, 치킬로 테모필로, 폴리카르포, 헤레나, 추고

*** 성녀 아가타**

불확실한 전설이지만 성녀 아가타는 시칠리아(Sicilia) 섬의 카타니아 혹은 팔레르모(Palermo)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심이 깊어 하느님께 스스로 정결을 서원하였다고 한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기간에 그 지방의 집정관이던 퀸티아누스(Quintinianus)가 그녀를 탐해 그녀를 소유하려는 계략으로 박해를 이용하였다. 그녀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퀸티아누스는 온갖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고 그녀를 매음굴로 보냈으며, 그녀의 가슴을 도려내고, 죽을 때까지 이글거리는 석탄불에 돌리면서 구워 죽였다고 전해온다.

교회미술에서 그녀는 보통 한 쌍의 짐게나 접시에 담은 그녀의 가슴으로 묘사되었는데, 후일 이것이 잘못 전해져 접시 위의 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성녀 아가타의 축일에는 빵을 축성하는 관습이 내려온다. 성녀 아가타는 처녀, 양치는 여자, 종 만드는 사람, 유리 제조공, 광부, 알프스 등반 안내자, 간호사들의 수호성인이자 불과 날씨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다.

말씀의 향기

‘신의 얼굴’ 인 이 빵

빵을 가지러 가는 네 손을 낮추어라
네 엄마가 자기의 손을 낮추듯이
아들아, 밀은 공기로 된 것이고 햇빛과 광이로
된 것이란다. 그러나 이 빵, ‘신의 얼굴’ 이라
불리는 이 빵은 모든 식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그걸 갖지 못했다면
아들아,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부끄러운 손으로 너는 그걸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를 읽으면서 때맞춰 풍성하게 차
려지는 우리의 식탁, 반성도 각성도 손의 낮춤도 없이 당연히
취하는 일용 양식의 윤리성과 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의 요구란 보다 더 소유하려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계산과 노력을 은연중에 깔고 있음
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식사전후에 바치는 기도에는, 우리가
취하는 이 음식이 선한 목적, 선한 행위에 쓰이기를 원한다는
영원이 담겨 있습니다.

끓주림을 채워주고 생명을 보장하는 이 음식물이 말씀으
로, 불꽃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물질을 정신으로
바꿔놓는 꺾을 수 없는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신성한 회오리바람을 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빵과 물고기를 사상이나 행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섭취한 음식물에서 얻은 힘으로 어떤 행
동을 하는가 얘기를 하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치고 허기진 사람들 앞에 놓인 음식은 넘치는 충만함과
기쁨과 희망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바로 ‘신의 얼굴’ 이나
다름없겠지요. 그러나 더불어 함께, 신의 사랑처럼 고루 누려
야 할 음식은 모든 식탁에 다 놓여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
른 애들이 그걸 갖지 못했다면 아들아, 아직 그걸 건들이지
않는 게 좋다’ 고 시인은 타이릅니다.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공동체 의식의 구체적 실현일 것입니다. 빵을 나눌 수 없을
때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과 명분으로 분칠을 한다 해도 우리
의 주장, 높이 든 기치는 공허한 몸짓, 울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제 몫의 음식을 나눈다는 것, 다른 사람의 빈 그릇을 생각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 이상의, 그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또
한 그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제반 조건과 구조를 개선해야 한
다는 의지를 낳고, 내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이익 등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재생산하여 몇 배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식탁의 평범한 빵이 ‘더불어 함께 나눔’ 으로서 말
씀으로,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
까 생각해봅니다.

오정희 실비아 | 소설가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일반 지향 : 노인들

교회와 사회가 노인들의 지체와 경험을 존중하도록 기도
합니다.

선교 지향 : 선교 협력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복음 선교를 위하여 서로 아
낌없이 협력하도록 기도합니다.

가톨릭전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 사회 윤리의 필요성

우리는 하느님 뜻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도둑질, 간음, 거짓말 하지 않고, 기도와 자선에 힘쓰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베드로씨는 훌륭한 신자입니다. 주일미사에 빠지는 적이 없고,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충실히 합니다. 헌금과 교무금도 누구보다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며, 가족들에게도 충실합니다.

베드로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공장은 일년 365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종교를 가진 직원들이 일요일에 쉬겠다고 하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임금을 조금 더 줍니다.

요즘 베드로씨가 사는 동네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베드로씨는 집값 떨어진다며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반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씨는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100점입니다. 그런데 사회 윤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윤리 생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파악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에게는 공동체적인 삶,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살아가는 현대 세계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사회 윤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그리스도교의 사회 윤리를 다른 말로는 “사회 교리” 라고 합니다).

- 인간에게는 사회생활이 필요하다. 사회생활은 인간에게 덧붙여진 우연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요구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 상호 의무, 형제적 대화 등으로 인간은 되도록 자신의 모든 재능을 키우고 자기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79항).-

2.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옛날 신자들은 세상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일에 가급적이면 가담하지 않고 신자들끼리만 어울려서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교회는 신자들이 세상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태어나서 사회 안

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사회 환경이 나쁘면 잘 살 수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 각종 유흥시설과 퇴폐업소가 즐비하다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 환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느님 뜻에 맞는 사회 환경이 되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입니다.

-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사목헌장 #1항).-

3. 개인적 회개와 사회적 참여

앞에서 개인 윤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사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문제만 너무 강조함으로써 개인들의 회개의 필요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잘못된 사회 탓으로만 돌리고, 본인 스스로는 회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노력은 “나의 회개” 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 시민들은 가능한 한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에는 모든 도덕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회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회개가 필요하다(가톨릭교회교리서 #1915-1916항).-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 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2월 2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익명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유데레사
	생 본당신부님	이요셉
	생 찬미성가대	유리디아
	생 정아가다(청자)	찬미성가대
	생 황아가다(순정)	찬미성가대
	생 채헬렌	박데레사
	생 양마리아(석순)	익명
	생 김요한(정훈)	김아네스(옥순)
생 서데레사	박데레사	
생 김유릿다	서데레사	
2월 4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생 이아가다(윤자)	익명
2월 5일 수	생 채토마스/줄리가정	박데레사
	생 김아가다(윤성)	김아네스(순이)
	생 서아가다	서데레사
2월 6일 목	생 육아가다	육아오스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생 김알렉스(지호)생일	김케넷가정
	생 이정우	전수산나
2월 7일 금	생 성시간 성가대	익명
	생 야고보/미카엘	이바오로
	연 부모님	원젬마
2월 8일 토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4	228	32	334
헌 금	\$530	\$1,125	\$32	\$1,687

< 교무금 > \$1,290

김영순(1) 권영현(1-2) 최환준(1) 이정연(1)
이경섭(1) 양인심(1-2) 이진열(1-2) 조덕행(1-2)
이건용(2)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Anastacia Murella \$200

< 초봉헌 >

최수영 \$50 박호영 \$200

~~~~~ 오늘은 성루카/우술라 가정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항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주님 봉헌축일 초 봉헌 : 오늘 교중미사 중  
이날은 주님의 부모님께서 주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날을 기념하는 축일이며, 모든 축성생활을 위해 기도하  
는 날입니다. 특히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할 초 및 기타 전례 용품을 봉헌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성합니다.

◆ 전례안내  
2월 6일(목) : 성시간

◆ 지속적인 성체조배 안내  
2월 7일(금) 저녁 9시부터 2월 8일(토) 아침 7시까지

◆ 김광근 도미니코 신부님 송별 미사 안내  
2월 9일(다음주) 8시/교중미사  
\* 저희 본당에서의 사목을 마치고 떠나시는 도미니코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8시/교중미사 후 전신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님 부임미사 안내  
2월 16일 8시/교중미사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현재 198 세대 중 91세대만이 약정하셨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울뜨레야 모임 : 2월 2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구역장회의 : 2월 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요아킴/안나회 : 2월 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길잡이 학교 4기 수강생 모집  
대상 : 관심 있는 꾸르실리스따 모두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5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Presentation Center ( 프레젠테이션 센터)  
19480 Bear Creek Rd. Los Gatos,  
주제 : 일치의 여정  
강사 : 한승주 스테파노 산호세 성당신부님  
최동원 베드로 교육부장  
참가대상 : 각 본당 성령기도회 봉사자 및 기도회원과  
관심있는 교우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신청 및 문의 : 각 본당 성령기도회

◆ 전례 성가대 안내  
\* 새로운 단원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연습시간 : 교중미사 전(오전 10:00 ~ 10:50)  
교중미사 후 1시간  
\* 성가대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보이스 클리닉도  
있습니다.

◆ 세금보고 자료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 가십시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